

“建築 너 뺏고” (1) (饒舌的建築愚論)

■ Essay

Want to Know What is Architecture
by Choi, Chang-Kyu

우리민족은 원래부터가 성현의 말씀이 어떡코하면 맥을 추지못한다. 聖賢의 말씀이니까, 우린 聖賢이 못되니까. 이런 일을 요새는 比較 劣等意識이라 한다던가. 聖賢의 말씀이니 지당하시겠고 명언이겠지 하고 속시원하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믿을 수 없고 회의를 품게 된다.

이건도 반발도 질문도 없다는 말이 된다. 참말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말들이 하나같이 哲學的이고 敎訓的이란 점에서 그러할지는 몰라도 건축을 한답시고 50년이란 세월을 흘러보냈고 경노우대증을 가지고 다닐 社會的特惠를 받고 있는 요즈음 점점 더욱 외롭게 웃어본다.

崔昌奎
건축사사무소 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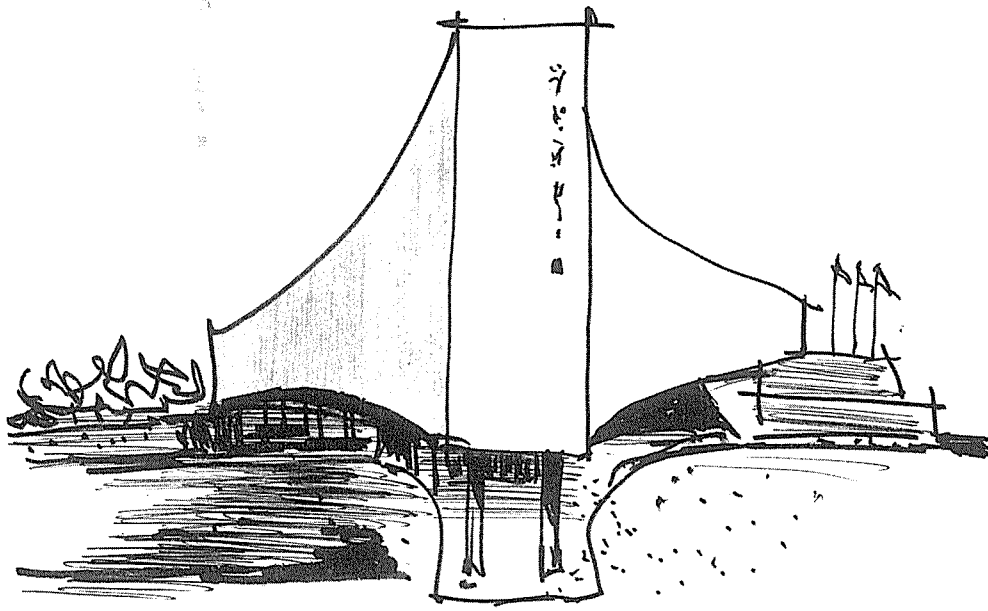
우울과 거부와 항거와 분노가 일시에 解結되는 奇蹟은 초여름 하늘에 날아가고 “어 뭔가 되어 가는데”라든가, 환호나 박수가 최류탄냄새에 자욱했던 거리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온 그런 요즈음, “이젠 豊年이나 들고”, “Olympic 이나 멋지게 치르면 제 궤도에 올라서겠지” 이것이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말들이다.

이런 초여름 하늘처럼 탁 터진 가슴에서 뭐 스치는 饒舌的建築愚論”이란 기괴한 제목을 붙여 어리석은, 건축에 대한 잔소리나 해보자이거다. 도대체 건축이 學問이나 哲學이나 藝術이나 技術이나 裝置야 製飾이야라고 누가 묻는다면 딱부러지게 名答을 내릴 수 있는 建築大家나 敎授나 博士님들 있거든 손들어보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싶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가 성현의 말씀이 어떡코하면 맥을 추지못한다. 聖賢의 말씀이니까, 우린 聖賢이 못되니까. 이런 일을 요새는 比較 劣等意識이라 한다던가. 聖賢의 말씀이니 지당하시겠고 명언이겠지하고 속시원하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믿을 수 없고 회의를 품게 된다.

이건도 반발도 질문도 없다는 말이 된다. 참말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말들이 하나같이 哲學的이고 敎訓的이란 점에서 그러할지는 몰라도 건축을 한답시고 50년이란 세월을 흘러보냈고 경노우대증을 가지고 다닐 社會的特惠를 받고 있는 요즈음 점점 더욱 외롭게 웃어본다.

建築의 歷史에서 (東西洋) 볼 때 우리의 선인들은 훌륭하고 멋있는 건축을 해놓았다는 점은 인정한다. 원래가 건축이란 학문이 他學問에 비해 그 내용이 복합적이고 外樣이 다양하고 시대의 변천과 지역성과 思潮의 흐름에 따라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만 가는데도 선인들의 명언은 (弄談이래도) 敎條나 信仰같이 생각하고 一言半句의 반론이나 거부가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의 先人들은 몹시 유식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된다.

오만의 자기의 建築觀의 주장이 얼마나 될 것이며, 비건축인인 일반서민들의 의견이나 생각따위는 아예 무시된 일이 얼마나 될 것이며, 비전문인인 官權者들이나 富裕한 건축주들의 橫暴는 얼마나 되였는가? 이런 일은 마치 요즈음 민의를 우습게 알고 自稱, 指導者로 정치가라는 사람들(우린 그들에게 통치해 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었고 우릴 지도해 달라고 요청한 일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지도자라고 했고 정치가라고 저희들끼리 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민의에 굴복하고도 도리어



특히나 준 양으로 생색을 내고 있으니 더욱 가소롭다는 말이다.

한국에서의 近代建築의 역사는 他國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젊은이들은 기성건축인이고 뭐고 따위의 말을 쓰고 있지만 예로써 우리 정치가가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정치교육이나 훈련이나 체험을 시간적으로 얼마나 했던말인가.

지도자나 정치가가 30~40년 정도의 시간으로도 가능할까? 건축의 기성이니 대가니 거장이란 30~40년 정도의 시간성으로 가능하단말인가? 먼저 시간의 학문이라고 하는 건축에서 시간성을 배제하고 建築云云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패전국이라고 할 일본의 경우만해도 패전국이라고해도 국민이 전멸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건축의 역사적인 전통이니 선후배의 관계나 학교의 유치상황이나 서적이나 연구자료의 보유량등은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으니 선후배나 기성이니 따위의 말이 성립될 것이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일제하에 일본인들 밑에서 눈치나 보다가 해방이 되었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근대건축에서는 기성도 신세대도 없다. 출발선을 그어놓고 老少가 동시에 준비, 출발! 식의 육상경기처럼 시작되었다. 더우기 학교의 장비문제, 교육제도문제, 교원의 확보문제등에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열심히한 자가 앞설 수 밖에 없었던것도 사실이고 운 좋게 외국에 나갈 수 있었던 소수도 美軍駐屯下의 軍事建築(흔히 2'x4"建築이라함)을 求景하다가 서서히나마 시간이 흘러서 외국 건축서적에 접하게 되고 Time Siver 나 Grapic Stander 정도나 그후 일본에서 흘러 들어 온 신건축 정도로 정보나 사진을 보고 지냈을 뿐이다. 그후 A + U 니 기타 국제건축등의 잡지류에서 서서히

건축서적이라고 외국건축서적이나 일본서적에 접하게 되어왔다. 더우기 국가혼란기라 건설분야가 활발했던 것도 아니고 주택이래야 재래 일본식의 흥내내기나 해왔던 것이다. 그동안 정치나 사회의 혼란이나 6.25등등 헤아릴 수 없는 過度期的 混亂 속에서도 서적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 입수되었다. 가소로운 이야기는 모설계 사무실에서는 신건축 잡지를 펴놓고 "이번 Project 는 이 사진대로 하자"식으로 건축에서의 Elzvation 의 결정은 창의도 아닌 模寫를 해서 "멋진 건물이다"라고 평가를 받는가 하면 어떤 현상설계의 당선작이 외국잡지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출판한 예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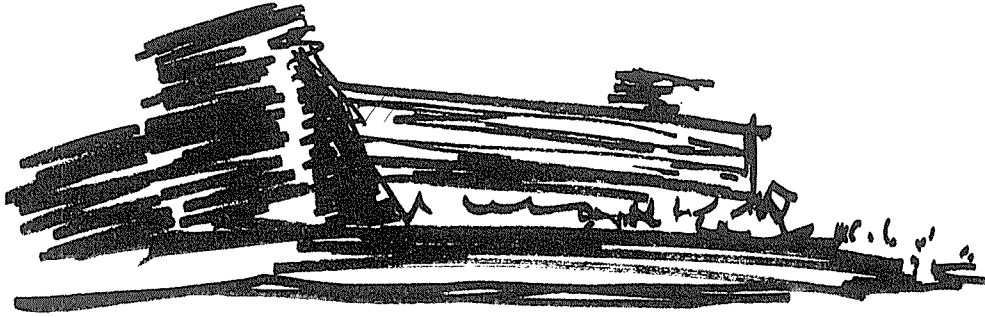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일들은 건축이란 그 사회상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당연한 사건들이라고 치드라도 이제와서 그 문제를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근대 건축사의 정립이 안된 이 마당에서 흘러간 시간대 속에 속하는 되돌아킬 수 없는 어떤 한나라의 건축의 초창기에 있었던, 또 있어야 했던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겠다.

근자의 우리의 사회상황은 위의 상황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많은 사람들이나, 국내에서의 학교가 서서히 정비되어 修學한 학생들이나, 각종 루트로 수입된 외국서적들이나, 전체국민들은 건축에 대한 의식개념, 이해와 더우기 국내의 건설분야와 보조를 맞추어 활발해진 건축계의 활동상이나 건축재료의 생산과 건설분야의 외국진출 등 국제적사정과의 연관성등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의 變化向上은 외래인들로 하여금 신화적 발전이라고 평을 받을 정도이고 국내의 고속도로나, 중공업등 급속한 (우리도 놀랄만큼)개발이나 발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외국에 의존하고 외국에 동경하고 외채를 얻어서까지도
우린 땀을 흘린 것이 오늘의 G.N.P 요 수출흑자인
것이요, Olympic 유치도 전반적인 조건에서 얻어진
것이지 누가 그냥 줬다준 것은 아니다. 5.16등의
대사건이나 사회적인 놀라운 사건도 많았지만 그래도
용케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서두에
말한 최후의 일보직전에서의 기적같은
정치문제해결이라고 보아야겠다. (외국인의 말을
빌리면), 건축에선 전기한 바와같이 이 명언들이 많다.
“건축은 그 사회상황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면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대로 그 사회의
以下라고해도 현실적인 우리 사회상황의 以下란 뜻이
되겠지만 그 수준이 할지라도 東南亞, 中南美의
最上보다도 優位라고 자부할 정도라면 그것으로도
족하다. 그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무시되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서는 우리의 젊은 건축가들은 이 정도에서도
불평이 있다. 曰 建築情報不在, 建築書籍不足,
建築評論不在 라고 한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인 것만
같다. 過剩된 의욕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建築情報은 각종 매스컴으로 범람해 있다. 建築書籍은
언어의 장애는 있다해도 購賣力문제이지 얼마든지
있다. 評論不在는 우리의 評論專攻이라든가 외국의
평론에 적용이 안되어 있을 뿐더러 발표력이나 문장력에
관한 문제이지 각자 나름의 평이나 의견은 충분히 있다.
오히려 이 세가지 不在니 不足이란 너무도 범람해
있어서 각자의 선택에 혼란이 있을 정도이니 결국은
不在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린
매일같이 직접 우리에게 불필요한 정보마저도
강요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저 태평양 건너의 흑인 가수나 배우들의 체격 Size 나
사생활까지도 강요받을 이유야 없지 않겠는가. 요는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선택에 우린 더욱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직접 필요도 없는
정보인데 말이다.
건축가는 傲慢할 정도로 자기 나름의 건축관을 가지고
있다. 각자는 자기의 작품을 만족(대개의 경우는
솔직하게 불만족하면서도)한다. 그리고 남이 自作을
자랑하면 속마음으로는 픽 웃는다. 표면에 나타내지는
않지만 말이다. 필자 자신도 그런 경험을 몇번인가
가져본 일이 있다. 도대체 건축에 어떤 이 이상 더
훌륭한 것이 없다라는 규정이나 표준같은 것이 있을까?
물론 나라면 저렇게 하겠다 정도의 의견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절대는 못되는 것이다. 우린 가끔 국제

건축가는 傲慢할 정도로 자기 나름의
건축관을 가지고 있다. 각자는 자기의 작품을
만족(대개의 경우는 솔직하게 불만족하면서도)한다.
그리고 남이 自作을 자랑하면 속 마음으로는
픽 웃는다. 표면에 나타내지는 않지만
말이다. 필자 자신도 그런 경험을 몇번인가
가져 본 일이 있다. 도대체 건축에 어떤 이 이상
더 훌륭한 것이 없다라는 규정이나 표준같은
것이 있을까?

현상설계작품의 당선작이나 입선작을 볼 때가 있다.
그럴때 작품이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을까?”,
“야 - 이건 과연 대단한 역작이구나”, ”당선작보다
입선작이 더 좋아 보이는데” 등등의 생각을 가지는 때도
있다. 이럴때 내가 심사원이 될만한 자격이 없었으니까
심사위원들이야 저명한 건축가들일 터이니깐 그런가보다
(이건 내 자신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작품이 (그 다양복합한 요구조건이나 응모규정을
몰라도) 완전무결한 최상의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작품이 건축에 있을까?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건축이란 학문의 의미는 우습게 될 것이다. 그 최상의
것만 잘 이해하고 그것대로만 하면 된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 있다. 때문에 건축이란 무한으로 이어지는
시도의 연속이요 시도의 진행형이라고 하지 않은가,
건물 하나하나를 평한다해도 그 결과는 동일한
것이되겠으나 그 건물의 건축주(發注者的의
決定權者)의 간섭이나 의견 역시 두통거리인 것이다.
그들은 당연히 “내돈 내고 내가 쓸 나의 건물을 왜 내
마음에 맞게 할 수 없어”라는 論調이다. 그래도 그들은
위탁한 건축가에게만 그런 행동을 할 뿐이다. 그들이
病이 나서 病院에 가서 專問醫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해주면 일언의 불평도 없이 순종한다.
그들이 만일의사를 건축가와 동일하게 대한다면 내
병인데 내가 먹고싶은 약이나 처방을 해 달라”고 할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건축에
대해 알고있는 저속한 상식보다 病이나 健康에 대한
상식이 없다는 점과 병은 직접적으로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은 그 상황이
고통과 다름뿐아니라 오히려 더 안락하고 즐기며
생활하겠다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醫療費와 設計費의 문제도 거의 같은



意味內容에서 일어나는 말썽임에 불과하다.
 서두에 巨匠이나 先人들의 建築에 관한 명언이나 명구를 들먹였다.
 “좋은 平面은 좋은 立을 낳는다.” “形은 기능에 따른다.”
 “건축은 멀리서보면 대체로 아름답고 가까이가서 보면 대체로 醜하다.” “건축은 사용목적 이전의 造型이다.”,
 “黃金分割은 아름다운 것이다.” “모방이나 표절은 건축제작에 대한 모독이다.”, “건축의 생명은 純粹에 있다.”, “건축은 오직 裝置에 불과하다.”, “작가의 個性이나 思想이 깃들어 있지 않는 건축은 건축이 아니다.”, “국제불명, 주소불명의 건축은 장난이다.”,
 “奇怪는 奇怪일 뿐 건축이 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한 것만은 아니다.”, “건축엔 完全無缺이나 節對傑作이란 없다.”, “건축이란 무한으로 이어지는 試圖의 연속일 뿐이다.”, “건축은 창작이라고 우겨도 결국 連想에서 생성된다.”, “건축은 글이나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은 社會의 產物이지 건축주의 소유물만은 아니다.” “건축은 건축주만의 使用이라 보는 것만은 아니다. 만인이 보고 느낄 수 있고 즐길 수도 있다.”, “건축은 模倣의 一種에 불과하다.”, “동일한 건물도 核과 群에서 의미가 달라진다.”, 平面이 아름다우면 立面도 아름답기 마련이다.”, “입면이 아름다우면 평면도 아름다워진다.”, “건축은 機能的이어야 한다.”, “제 아무리 유능한 건축가도 그의 全盛時代에 한 두개의 傑作이 나올 뿐이다.”, “건축은 새로워야 한다.”, “건축은 상품이 아니므로 新舊가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
 “현대 건축은 設備가 그 건물의 性格이나 價値를 결정지어준다.”, “표현은 사실보다 과장되게 마련이다.”,
 “어떤 물질도 건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위환경과의 對照나 調和는 사실 의미가 없다.”,

“대지의 명당설은 경제력이 판정할 일이다.”, “마감이 曖昧한 곳은 보이지 않게 하라.”, “新材料와 構造는 건축을 변조시킨다.”, “조형의 의인화나 의물화는 자신이나 능력이 없을 때 하는 일이다.”
 “각종 주의나 사조는 전체건축에 통용되지 않는다.”,
 “복고나 회고조는 기발의 추구에 불과하다.”, “건축에 표현이나 설명이나 이유는 변명에 불과하다.”, “건축은 일종의 건축가의 자기 위안이요 공지에 불과하다.”,
 “건축에서의 主從은 확고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건축의 각부 독립성이란 건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사회생활양식에서 요구되는 일이다.”, “다목적이란 경제용어이지 건축용어는 아니다.”, “건축은 인간생활의 그릇이요 장치일 뿐이다.”, “건축에서의 시간성이란 模糊해 간다. 利潤追求가 우선해 가기때문이다.”,
 “용도나 사용목적 없는 건축도 건축은 건축이다.”,
 “조형물과 건축의 구별은 할 수가 없다.”
 “미와 감각의 혼동은 현대의 상식이다.”, “문화와 예술의 구분은 언어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예술과 기술과 기능창조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表現主義와 象徵主義와의 차이는?” 各樣의 主義나 樣式은 그것으로 건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으로서 그것을 표현하는 일이다. 인간은 아니 건축가들은 자연과 건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건축에서 자연을 等閑視한다. 건축이란 실제의 건축보다도 時間性이 더욱 건축에 의미를 부가한다.
 “건축이란 계획도면의 창작에서 제도판 위의 도면과 본인의 대결이다. (적절한) 건축가가 승리하면 그 도면은 살아 움직이고 건축가가 패하면 그 도면은 무의미한 紙片이 된다.” 결국은 건축이란 視覺的인 것이 된다.
 이것은 存在와 生存과의 관계와 흡사하다.

〈다음호에 계속〉